



## 2013년, 걱정보다 기대가 큰 이유

김지산 기자 / 머니투데이

동료 기자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열심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려 냈다. 아직 할 일이 많냐고 물었더니 '용돈벌이' 외고를 쓰고 있단다. 그는 매주 경제 관련 잡지에 외고를 보내고 원고료를 받고 있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세후 60만원 안팎이라고 했다. 물론 이 돈은 아내가 모르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본업인 취재와 기사 작성 외 별도 시간을 내 매주 외고를 쓴다는 건 사실 번거로운 일이다. 그는 그만큼 용돈이 궁한 모양이었다. 그 기자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은 30만원. 교통비와 통신비 심지어 이발비까지 30만원 안에서 다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경력 11년차에 후배들에게 술이라도 한 번 사면 용돈은 금세 바닥을 보이기 일쑤였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세운 대책이 아내도 모르는 외고 아르바이트였다. 이렇게 벌어 한 달 용돈은 9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비교적 알뜰한 편인 그는 매월 남은 돈을 적립한다고 했다.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져 연봉이 동결될 공산이 크고 외고 아르바이트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몰라서란다.

이 기자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내 몰래 보너스 통장을 따로 만드는 방법의 고전적 비자금 마련 이외에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용돈벌이는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받는 보너스라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다. 부서장이 돼서 부하직원들에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주는 게 사실 말 못할 부담이 돼 버린 지 오래다.

## 미국발 나비효과는 중국에 혼풍으로 다가설 전망

딱딱한 주머니 사정이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예상이 쉽진 않다.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만한 큼직한 팩트 몇 개가 주어졌다. 오바마 정부는 2기에 들어섰고 중국은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유럽 위기는 안정권은 아니지만 극단적 위기는 벗어났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학계와 연구소들의 연구자료보다 기업들에서 이런 기운이 느껴진다. 제조경기의 기능자 역할을 하는 철강시장에서 포스코는 얼마 전까지 내년 전망을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그런데 분위기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2년을 소폭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투자도 올해보다 줄이지 않을 분위기다. 기업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비슷하다.

근거는 우선 미국에 대한 기대다. 재정절벽 현실화에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임시예산안 법의 유효기간인 2013년 1분기까지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높다. 파국은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 상황을 불신하고 대선이 맞물려 2012년 하반기 설비투자를 급격히 줄였던 기업들이 고삐를 풀듯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개연성도 높다. 억눌렸던 스프링일수록 반발력은 더 강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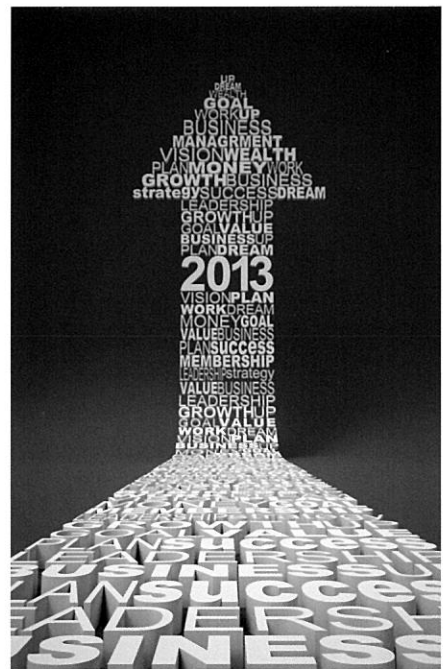
주택 공급량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가격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낮아지는 실업률이 추세를 탈 경우 소비심리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진다. 미국발 나비효과는 중국에 혼풍으로 다가설 전망이다. 미국 소비가 살아나면 중국 생산이 활발해지고 물동량이 많아진다. 미국과 중국 교역량이 전체 무역량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에게겐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물론 중국에 과거와 같이 기적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높아졌다. 2012년 상반기 중국 16개 성과 직할시의 최저임금이 19.7%나 높아졌다. 중앙 정부는 2015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을 13% 수준으로 유도해 이때까지 궁극적으로 소득을 두 배 올리겠다는 목표다.

계획만 보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시각을 달리하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내수경기가 좋아진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우리에게도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SOC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투자 대상인 철도만 봐도 2020년까지 8,000억위안(143조원)에 이른다. 여전히 중국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을 떼놓고 우리 경제를 독자적으로 전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측은 전망과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복지지출 확대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전체 정부 지출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보건, 사회보호 비중은 20% 수준이다. 이 부분에서 지출이 늘면 전체 정부지출액이 커진다. 한국 재정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재정악화 우려보다는 내수부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대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이자부담 상승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심리를 억누를 게 분명하다. 세계 경기 침체를 불러온 한 축인 유럽 재정도 그렇다. 유럽은 온통 재정감축에 시선이 쏠려 있다. 정부 역할 축소와 민간 소비 침체 고리는 좀처럼 끊기 어려워 보인다.

### 경제는 심리,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위하여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팍팍해진 우리네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모를 일이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쓰고 곳간에 고이 모셔두는 게 지금의 세태다.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자면 남들처럼 돈 쓸 여유가 없다.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진다. 50대 정년퇴직까지 직장에 붙어 있기도 어렵다. 그러니 돈을 모아둘 수밖에...

이럴 때 금융 투자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할 만하다. 유동성에 힘이 실리면 기업의 금융 조달이 용이해지기 마련이다. 경기 회복의 주요 축이 기업 투자다.

이런 게 선순환이다. 소비도 투자도 선순환 벨트에 올라타는 사람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법이다. ▲

## KCA In-side

### 한국시멘트협회,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시멘트협회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기술교류 컨퍼런스'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업계와 함께 전 세계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폐열발전 도입 등 에너지 절감에 회원사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원 분야 단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멘트업계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시멘트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산업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